

카드·사채 88조, CP 120조… 채안펀드, 급한 불 껏지만

<연내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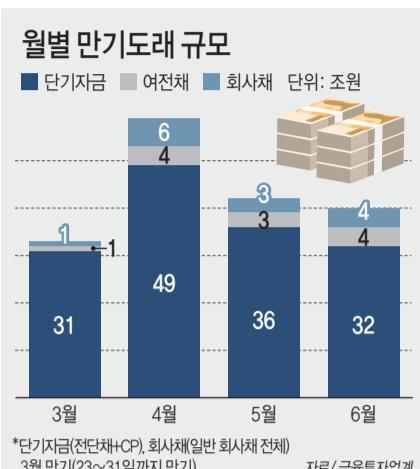
<월말만기>

얼어붙은 채권시장

2분기 중 만기도래물량 33.8조
수요 없어 기업 자금조달 난항
CP 등 단기자금시장 10조 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 위기가 채권시장까지 얼어 붙게 만들었다. 나오마마 품절되던 은행채 시장에서 미매각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을 시장에 공급하던 발행사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기업의 '돈맥경화'가 시작됐다는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채권인정펀드(채안펀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길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중 카드채, 캐피탈채, 회사채 만기도래물량은 총 33조 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한해로 확



장할 경우 88조 1000억원 규모다.

이 중 차환 관련 유동성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 만기도래물량은 상반기 내 3조 700억원, 연내 7조 6400억원 수준이다.

최근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물량을 받아낼 만한 수요가 마땅치 않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최악의 경우 '흑자 도산'

이 발생할 수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 메리트로 선호도가 높았던 캐피탈 채권, AA등급 우량 채권의 수요예측에서 미달이 발생하면서 발행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면서 "연초부터 4월까지는 발행이 많은 시기임에도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급속한 시장 냉각으로 발행이 취소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안펀드가 수요자로 등장하면서 '급한 불은 껏졌다'는 평가다. 채안펀드 규모가 최대 20조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채와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은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훨씬 규모가 큰 기업어음(CP)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CP 발행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현재 약 245조원에 달한다. 월간 만기도래물량만 약 120조원이다. CP는 만기가 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급한 돈'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일부 우량회사들도 금리 네고(협상)를 통해 CP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리 수준보다 당장의 현금흐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태훈 아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내 A2+ 등급 이하 발행사의 CP 만기도래 물량을 고려하면 채안펀드 규모는 최대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안펀드가 수요자로 등장하면서 '급한 불은 껏졌다'는 평가다. 채안펀드 규모가 최대 20조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채와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은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훨씬 규모가 큰 기업어음(CP)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CP 발행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현재 약 245조원에 달한다. 월간 만기도래물량만 약 120조원이다. CP는 만기가 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급한 돈'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일부 우량회사들도 금리 네고(협상)를 통해 CP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리 수준보다 당장의 현금흐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관건은 경기 회복이다. 그는 "투자자들은 적어도 2~3개분기 동안은 기업의 실적 개선과 구조조정, 부채 감축 노력 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올 한해의 크레딧 투자 심리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안정은 주식시장 안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 등을 매개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채권시장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잔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일정 연기, 수주 회피… 정비업계, 고심 깊어진다

분상제 연기로 여름분양대전 예고
수주 단독참여로 유찰도 사례 늘어

4월 말 본격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정비 사업장이 일정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주전을 회피하는 양상까지 보이며 유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분양을 서두르던 개포주공1단지, 수색7구역, 증산2구역, 수색6구역,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11개 조합이 관리처 분계획변경총회를 오는 5월 18일 이후로 미뤘다. 조합 모임 등으로 다수 인원이 밀집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 일정이 연기되며 '여름 분양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상제 적용일인 7월 28일을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연합뉴스

그러나 유예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재건축조합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선분양 혹은 후분양을 두고 고민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 협상뿐 아니라 사업지역으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동안 조합 내부의 갈

등이 큰 상황에서도 분양제 유예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임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했

지만 사업이 길어지면 또 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나온다.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열기로 한 관리처분계 회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선분양 혹은 후분양을 두고 고민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 협상뿐 아니라 사업지역으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동안 조합 내부의 갈 등이 큰 상황에서도 분양제 유예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임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사업이 길어지면 또 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예정공사비가 1686억원 규모인 서울 흥제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도 조합원들이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유찰되는 사례도 나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주전에 따른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움직임 외에도 조합의 컨소시엄 불가 규정이 유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예정공사비가 1686억원 규모인 서울 흥제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도 조합원들이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

SK건설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PC 단축키 사용법' 콘텐츠를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SK건설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PC 단축키 사용법' 콘텐츠를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SK건설 유튜브 콘텐츠 PC 활용팁 인기

SK건설은 최근 '업무 효율을 높이는 PC 단축키 사용법' 콘텐츠를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구성원을 포함한 직장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K건설의 단축키 요정님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란 제목의 이 콘텐츠는 SK건설에 재직 중인 신입 및 선배 구성원이 출연해 회사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뛰어난 오피스 활용 능력을 겸비한 선배 구성원이 PC 사용이 미숙해 야근으로 고민하는 신입 구성원에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 사용법을 전수하며, 정시 퇴근을 돋는 게 주요 내용이다.

4분 분량의 이 콘텐츠에는 총 10개의 단축키 사용법이 소개된다. 이 중 화면 캡처 단축키(Win+Shift+S), 가상데스크톱 생성(Win+Ctrl+D) 및 이동(Win+Ctrl+좌·우화살표) 단축키 등은 실제 PC 사용 시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유튜브 공식 채널을 오픈하고, 직접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용자들과의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사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3~4월 수도권 비규제지역 1.9만 가구 분양

경기도 내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양주 옥정지구 제일풍경채 등 주목

'제로금리' 시대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이 투자처로도 떠올랐다. 특히 주거 인프라, 교통여건, 미래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수요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3~4월 중 1만89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택지지구, 도시개발 등을 통한 공급이 많은 편이다. 지난 2·

20대책에 따라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인천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 자체 70% 가량이 규제로 묶인 셈이다.

따라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도 내 아파트의 반사이익이 점쳐진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비규제지역 중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인천도 7호선 연장, GTX-B노선이 대기 중이다. 시흥도 신안산선(2023년 예정),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관통한다.

눈 여겨볼 신규 아파트 단지로 우선

경기권에서는 양주에서 제일건설(주)이 4월 중 '양주 옥정지구 제일풍경채' 2474 가구를 분양한다.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까지의 연장 계획도 잡혀있다.

같은 달 제일건설(주)은 평택 고덕신도시 A41블록에서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75~84m² 877가구를 분양한다. 시흥에서는 영무건설이 20일 시흥장현지구 B-9블록에 '시흥장현 영무 예다음' 84m² 747가구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열고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장곡역이 바로 앞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이규성 기자 peace@